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 성찬식 집례

28일(토) 오후 2시 육사교회서

당일 12시 육사행 버스 출발

올해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서울교회 주관으로 3월 28일(토) 오후 2시 사관학교 내 육사교회(담임목사 안상기)에서 거행된다.

98년도 입학한 57기 육사생도들의 입교(入校)와 함께 열리는 이번 세례식에서는 육사 신입생도, 재교생도, 육사교회의 신우와 학생 그리고 육사교회 성도 가족의 세례, 입교, 유아세례 등이 집례된다.

이날 세례식은 오후 1시 세례자교육에 이어 2시부터 드리는 예배 중 성찬식과 아울러

열리게 된다.

또한 세례식 후에는 2부 행사로 육군사관학교 식당에서 친교 및 다과회가 진행된다.

찬양대원을 비롯, 예배 및 2부순서에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당일 12시 서울교회당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복음화의 불씨라 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은 1993년부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선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추진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진은 작년 육사세례식 광경

“복음화된 통일조국” 위한 군선교

비전2020운동과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

금세기 들어 일제에 의한 강점과 동족간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군대에 대한 의미가 각별하다. 군대의 규모는 수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을 합해 180만명을 넘는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군의 존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들어 군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위원회(위원장 이종윤)가 발족,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군선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비전2020운동은 우선 군선교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며,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음화되도록 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숫자상으로는만 볼 경우, 한 해 군에 입대하는 남자 약 20여만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 25년 동

안 500만 명이 신자화될 수 있다. 그들이 가정을 가질 경우, 고벨로 가정에서 보듯 효과적으로 가정복음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1996년 현재 1200만 신자(인구 4500만의 25%)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2020년에는 3700만 신자(인구 5000만의 75%이상)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된다는 계산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군복음화는 세계 선교를 위해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는 기독교인

수의 0.04%에 해당하는 3,000명에 이른다. 이것이 2020년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0.1%에 해당하는 30,000명에 달하는 선교사의 파송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 군복음화는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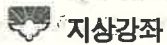
이를 위해 비전2020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윤 목사는 통일 신학을 정립하는 일,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받도록 하는 일(노혜미야 전략), 비전2020운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일 등을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제시했다. <내용요약은 2, 3면>

제 3학기 서울성경대학 등록 접수

수강료는 과목당 오천원이며 이번 학기 첫 수강자에 한하여 입학금은 오천원이다.
등록 문의는 사무국.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교과과정표 (3~6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사사기	월요일 오전 10시	김정현 목사	3월 30일
에스더	월요일 오후 8시	민영수 목사	3월 30일
히브리서	화요일 오전 6시	이순환 목사	3월 31일
갈라디아서	화요일 오후 8시	박귀환 목사	3월 31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2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연숙 집사	4월 2일



비전2020운동의 신학적 - 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I. 성경적 통일신학 정립의 제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같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의 제1차 민족분단이 빚어졌다. 그리고 BC 926년 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제2차 남북으로 민족 분단이 생겼다.

1. 두 왕국의 실패한 무력 통일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단 후 약 200년 간 공존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으로 저들은 서로 힘의 우위만을 찾는 무력통일 정책을 썼다. 그들의 이같은 무력통일 정책은 국력소모만 될 뿐 완전통일엔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구나 외세를 끌어들이므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외세에게 차례로 먹히는 결과만 가져왔다. 결국 무력통일은 성경이 제시하는 통일방안이 아님을 확증시켜준 셈이다.

2. 역대기의 포로기 전후의 통일사상

· '온 이스라엘' 사상: 역대기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포로 후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통일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의 모델로 다윗을 내세우기 위한 역대기 기자의 신학적 표현이다. 이것은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통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인구면에서는 12 지파를 다 포함하고 지리적으로는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하맛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다(대상13:5).

· '한 형제' 사상: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그들은 서로 싸우려고 군사를 동원했다. 이 때 예언자 스마야가 이를 만류했다(대하11:4). 나라는 집권자들로 인해 나누어졌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한 형제임을 강조한 것이다(대하28:8, 11:15).

· '한 하나님' 사상: 유다의 하나님은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사상이다(대하13:12, 28:10, 30:8). 하나님은 북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대하22:7). 이스라엘에도 미가야 같은 예언자가 활동하는 것은 인정했다(대하18). 여기서 우리는 북한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자세를 반성해야 한다. 역대기엔 북왕국 역사가 실려

있지 않다. 그것은 남북분리 사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통일의 표현이다.

다만 다윗 언약을 어긴 사마리아 집권자들과 종교혼합주의자들은 거부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비록 사마리아인이 라도 구별치 않고 받아들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한가지 사실은 온 이스라엘 사상이 다윗왕조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다윗은 남유다의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상화된 다윗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즉,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우리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통일 신학

통일된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사11:11-16, 호1:10-1, 렘3:18, 겔37:15-28). 그 다윗은 흠이 많고 실정을 많이 한 유다지파의 다윗이 아니고 상징으로 이상화된 다윗 즉 메시아를 의미한다.

예언자들의 통일 신학에서 우리는 공통점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다.

1.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선 통일성취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미래사건 혹은 종말론적 사건을 기대하고 있다.

2. 따라서 남북화해, 민족통일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3. 민족통일의 시기는 한 영도자 곧 메시아의 도래시기와 결부되어 있다. 민족통일을 가져다 줄 메시아는 다윗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다윗이 아닌 이상화된 다윗이다.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이 되었다 해도 무의미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일 노력과 통일 신학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자.

1. 이스라엘의 남북분단은 지배계급(권력자)들의 집권욕에서 기인했다. 한국의 남북분열도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분히 미·소 양 진영의 패권주의와 당시 민족 지도자들의 사욕이 없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2. 무력 통일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더했을 뿐 통일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

3. 역대기에서 온 이스라엘 사상이 강조되었다. 종족이나 지리적 면에서 민족 동질성이 강조되었다. 한민족, 한형제성이 강조됨으로 서로 비방 하고 원수로 여겨서는 안된다.

4. 히스기야, 요시아왕 때엔 북쪽 동포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가 독일통일은 앞당겼음을 기억하자.

5. 역대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 하심을 인정하자.

6.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에스겔의 경우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7.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통일을 기다렸다.

8. 결국 '복음화된 통일조국' 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군선교를 구체화 해야한다.

II. 복음화된 통일 조국에 대해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느헤미야 작전의 실천

BC 445부터 BC 432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전략을 우리의 군선교 작전 지침으로 삼기로 하자.

1. 우선권 선정을 바로 하라.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다. 용기와 행동이 요청되는 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1:4). 그는 주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1:5-6)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6-7). 그리고 감사와 애원의 기도를 지구력 있게 드렸다(느1:8-11, 2:1).

Vision 2020운동의 성패는 전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있음을 알자.

2. 중간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느헤미야는 아직도 파사의 속국으로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수산궁과 교통이나 통신망도 없는 먼 곳에 있으면서 상하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3.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충성은 틀린 것을 옳다 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항상 반대만 해서도 안된다. 충성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일하는 한 그

지상강좌 / 비전2020운동의 신학적 - 실천적 고찰

것이 충성이다. 느헤미야의 마음엔 항상 왕과 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국을 위하여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건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상이며 비전이다.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고 나라사랑의 길을 믿어야 한다.

4. 기지(Tact)를 바르게 발휘하라.

느헤미야는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말을 하여 왕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2:3)이라 말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냈다. 범사를 지혜롭게 하되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5. 정직하게 하라

기지를 발휘하다 보면 신실성을 상실할 경우가 많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조상의 무너진 성을 중건하기를 원한다(2:5)고 했다. 잘못된 통계보고로 숫자 놀음만 하지 말고 정직한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물질 관리에서 정직성은 이 운동이 장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케 될 것이다.

6.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전 2020은 우리의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다.

7.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라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구체적 목표(goal) 설정을 한 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비전 2020의 계획을 구체화 해야 한다.

8.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도했다. 그의 소원대로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나이다"(2:8)라고 했다. 인간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않으면 헛수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엡3:20-21)

III. 비전2020운동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비전 2020운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 본다.

1. 일반 및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비전2020운동 지회를 각각 조직 운영한다.
2. 비전2020운동 조직을 위한 세부계획 지침서를 작성 발표하여 지회 창설을 돕는다.
3. 전국 기독교장병을 전산관리하고 군인교회와 일반교회가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며 기독교장병들을 위한 기도동역자를 찾아 연결시켜 준다.
4. 기독교 장병 영성훈련을 강화하여 복음화산의 전초병이 되게 한다.
5. 일반교회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기도협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한다.

6.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반드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한다.

7. 성장이 둔화된 한국교회의 회생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비전2020운동을 통해 일으킨다.

맺는 말

군선교의 목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민족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비전 2020운동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자!

* * *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심이로다"(시60:10-12).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삼하8:14).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삼하5:1-5).

"단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5:10).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불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삼하5:17-25).

■군대에서 온 편지 -

"주님, 주님! 아멘 아멘!" 하신 이유를...

윤요섭(대학부)

사랑하는 가족들께.
살롱!

하하... 저도 이제 편지 쓸 때 교회에서 쓰던 말들이 막 떠오릅니다. 군대에 와서 보니 부모님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질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과 어떤 힘든 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자 씨만한 믿음을 제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 놓던 제 마음 속에 비록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발견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엄마가 왜 항상 "주님, 주님! 예배, 예배!"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몰랐지만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주님을 찾았던 생활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며, 제가 그런 든든한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함께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며, 함께 읽곤 하던 성경말씀을 읽으니 아빠, 엄마, 누나가 지금 제 곁에 함께 있는 것같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 오다보니 제겐 술친구나 며별이 친구들은 없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을 알게 해 주신 부모님, 또한 믿음 속에서 함께 자란 누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 속에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경건

을 추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하고 활달하게 행함을 요구하는 때가 많아서 그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합니다.

누나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피아노를 배우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군대교회에 이등병 중 하나가 피아노를 칠 줄을 알지만 그를 데려가 반주를 시키려면 제가 안이주고, 먹을 것 사주고, 옷겨 주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제 말의 요지는 젊을 때 봉사를 해야 더 큰 은혜와 보람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부처런히 배우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참된 기쁨도 아울러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이 듬뿍 나누던 집생각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이만 줄이며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 상병 윤요섭 드림

● 각 부서 이모저모 ●

◇ 고등부= 이번 주일(22일) 학생들은 학교별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에서는 고등부 회원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학교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모색한다.

한편 고 3을 위한 기도후원자 모임이 다음 주 일 (29일) 오전 11시 고등부실(402호)에서 개최된다. 이 모임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학생 한 명이 다섯 명의 후원자와 결연하게 된다. 후원자들은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학생 및 재수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력을 쌓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일 년 간 기도로 후원하게 된다. -최형렬-

◇ 유년부= '토요일 전도'가 하나 둘씩 결실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특별히 교회 부근에 사는 어린이에게 3월 첫째주부터 꾸준히 복음을 전해왔다. 지난 주일에는 전도를 받은 이들 중 4명의 어린이가 새가족이 유년부살을 찾아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이선주 -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3학기 프로그램

“경건과 절제”

제 1교시	제 2교시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 배경식 교수 (한일신대)
	경건과 리더십 김기홍 교수 (아신대)
	1907년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사회변화 민경배 교수 (연세대)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 이만열 교수 (숙대)
	IMF 시대의 목회자의 의식변화 교무송 목사 (열린전원교회)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 최래옥 교수 (한양대)
	목회자의 의상과 절제 정장복 교수 (장신대)
	건강과 절제생활 김일순 교수 (연세대)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 관리 이연옥 이사장 (서울여대)
	목회자의 경건과 교회 부흥 이상근 원로목사 (대구제일교회)

사순절의 묵상

자기를 부인함에 대하여

“내 아들이,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마16:24). 그리하면 너희는 항상 더 큰 것을 얻으리라.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자 할 때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여 제가 얼마나 자주 저를 부인하오리까?”

“언제나 어느 경우에도 그리하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리하라. 만일 너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기의 의지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어찌 나의 종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너희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 것도 구하지 말라. 오직 주저함 없이 순결하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는 나를 소유하게 될 것이요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며 흑암이 너를 덮지 못하리라(시139:11).

너는 이를 위해 힘쓰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너의 소망으로 삼으라. 그리하여 모든 이기심에서 벗어나 벌거벗은 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헛된 환상과 의심과 쓸데없는 근심이 사라지고 근거없는 두려움이 떠날 것이다.”

토마스 아 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 순례자 컬럼 ◆

산양인격

지능지수(IQ)가 높은 사람을 우리 사회는 훌륭한 인재라 칭한다. 그러나 요즘엔 감정지수(EQ)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인간이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의지지수(WQ)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한 인간의 올바른 인격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작용의 종합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인격이라 부른다. 지식없는 신앙은 미신이거나 맹신이며, 감성이 결여된 신앙은 결의론적 사상에 빠져 율법주의화 될 것이다. 신앙은 지성의 합친 전인적인 것이며 인간 몸체에 부착된 약세사리나 없어도 될 부속품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는 매우 독립적인 것이어서 선용될 수도 또는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인간의 지성의 언제나 불완전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목회자동정

◆이종윤 목사는 23일(월)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에서 특강을 한다. 24일(화)엔 선교동역자 초청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주관하고, 26일(목)에는 비전126기도모임에서설교한다.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최영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2. 군선교와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